

중국 자본시장, 량방향 개방의 새 단계 진입



2021년 11월 7일, 제 4차 중국국제수입박람회 서비스무역전시구 대화은행 부스에서 관계자가 참가자들과 교류하고 있다. / 신화넷

상호증시와 량방향증시 상호연결 기제인 '호항통'(沪港通, 상호증시와 량방향증시 교차 거래)이 가동된 지 10년이 됐다. 그동안 거래 기제는 나날이 보완됐고 상품 수량이 꾸준히 늘어난 한편 거래 종류 역시 점차 다양해졌다. 상호연결(互联互通)은 이미 국제투자자에게 인민폐 자산 배치의 중요한 통로가 됐다 분석이다.

상호연결 수준은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다. 이달 초, 14개 증권사가 시범 참여하는 월항오대만구(粵港澳大湾区) '역외 금융상품 교차 투자'(理財通) 업무가 개시됐다. 투자유치증권사의 관계자는 역외 금융상품 교차 투자에 참여하는 기관이 늘면서 월항오대만구의 역내외 투자가 한층 더 편리해져 대만구 금융시장의 상호연결을 촉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능(AI), 생물약, 자율주행 등 신경제 분야의 기업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 더 많은 개방 조치 기대

앞으로 높은 수준의 제도형 량방향 개방이 한층 더 보완될 전망이다. 정책 제정의 안정성과 투명도가 강화돼

싱가포르거래소, 중국 판다본드 공식 상장



2024년 11월 18일, 싱가포르 대화은행이 발행한 50억원의 3년 만기 판다본드가 싱가포르거래소에서 정식 공식되었다. / 재정신문넷

싱가포르 대화은행이 발행한 50억 원 규모의 3년 만기 판다본드(熊猫债)가 18일 싱가포르거래소에서 공식 상장됐다.

이날 열린 상장 기념 타중식에서 주싱가포르 중국대사 조총명은 최근 열린 중국·싱가포르 양자간 협력연차위원회 제 20차 회의에서 중국·싱가포르 협력 25개 성과가 확인되었고 그중 싱가포르에서 처음 상장된 대화은행의 판다본드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성과가 중국·싱가포르 양국 금융시장의 상호연결을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싱가포르 금융관리국 보조장장 길

외자의 대 중국 투자가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외자의 A 주 시장 투자 통로와 범위가 한층 더 넓어진다. 이달 초 <상장사에 대한 외국투자자의 전략적 투자 관리 방법> 수정안이 발표됐다. 5개 방면에서 투자 문턱을 낮추고 외자의 증권시장 투자 통로를 확대함으로써 전략적 투자 통로의 자금 류입 잠재력을 발휘해 외자의 장기 투자, 가치 투자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의 정책·법규를 기초로 외자의 중국 투자에 더 많은 지원 조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증감회 기관사(司) 사장 신병은 7일 열린 2024년 상해증권거래소 국제투자자대회에서 "최근 상무부와 함께 적극 외국인투자자(QFII) 통로를 통한 국부펀드(主权基金) 투자의 세수 혜택 시행에 관한 가이드를 명확히 했다."면서 "단기 자금 거래 규칙, 프로그램 매매 규칙 등을 제정 혹은 수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감회 부주석 리명은 증감회는 시장, 기관, 상품의 전방위적 제도형 개방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며 역외 투자·유자를 편리화하는 한편 호항통·심항통 투자 상품의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 본토와 량방향 펀드(基金)의 상호 인정을 최적화하고 더 많은 역외 상장지수펀드(ETF, 上市指数基金) 상품 출시를 지원하며 예탁증서(存托凭证)의 상호 연결 역외 상장 통로, 선물시장의 개방을 확대해 정책의 안정성·투명성·예측가능성을 강화함으로써 더 많은 외자기관이 중국에서 투자하고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신화넷

중국, 일본에 비자 면제

38개국 입국 기간 30일로 연장



8월 28일, 한 외국인 관광객이 심양 도선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입국 수속을 위해 지문을 스캔하고 있다. / 신화넷

외교부 대변인 림검은 2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국내외 인원 왕래에 한층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중국측은 비자 면제 국가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4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국은 발가리아, 로트니아,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黑山), 북마케도니아(北马其顿), 말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일본의 일반려권 소지자에게 비자 면제 입국 정책을 시범 실행하게 된다. 림검은 중국측은 비자 면제 정책

을 한층 보완하여 교류 방문을 비자 면제 입경 사유에 포함시키고 비자 면제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고 소개했다. 소개에 따르면 11월 30일부터 새롭게 추가된 9개국을 포함해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한 38개국의 일반려권 소지자는 상업경영, 령행관광, 친척방문, 교류방문 및 경유 목적으로 중국에 입국할 경우 따로 비자를 신청할 필요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 신화넷

세계 과학연구도시 상위 20위중 절반이 중국 도시



4월 24일, 2024 중관촌 포럼이 열린 북경의 중관촌국제혁신센터에서 기자들이 로봇과 교감하고 있다. / 신화넷

'2024 자연지수(自然指数) 과학연구도시' 순위에서 상위 20개 도시중 절반이 중국 도시로 나타났다. 절반은 독일에 둔 스프링거(斯普林格) 자연그룹은 21일 중관촌 포럼의 시리즈 행사인 과학기술혁신중심 및 과학연구도시 포럼에서 자연그룹이 최신 선정한 세계 과학연구도시 순위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북경은 1위, 그다음으로는 상해와 뉴욕이 각각 2·3위에 올랐다. 자연지수 과학연구도시 순위에서 북경은 2016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화학 분야에선 현재까지 북경과 상해가 확실한 선두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중국의 일부 소규모 도시에서 화학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해당 분야에서 미래 경쟁자로 부상할 가능성도 점쳐졌다.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남경이 처음으로 보스턴과 뉴욕을 제치고 3위에 올랐다. 중국은 지속가능성과 생태보호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구·환경과학 분야에서도 선도적 입지를 굳히고 있다. 이에 북경·남경·광주가 해당 분야를 선도하는 3대 도시로 선정됐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는 청화대학 산업개발·환경치리연구센터와 스프링거자연이 2024 세계과학기술혁신센터지수(GIHI)를 공동 발표했다. GIHI에서는 북경이 세계 3위, 월항오대만구(粵港澳大湾区)가 6위를 기록하고 상해는 타이완과 도교를 제치고 7위에 올랐다. / 신화넷

특히 중국 도시들은 상대적으로 뒤쳐져있던 보건과학 분야에서도 뚜렷한 진전을 보였다.

중국, 산업용 로봇 밀도 세계 3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본사를 둔 국제로봇트렌딩이 현지시간으로 일 전 발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제조업 분야의 로봇 응용 속도가 계속 빨라지면서 지난 4년 동안 산업용 로봇 밀도가 두배 증가해 2023년에 세계 3위로 올라섰다고 밝혔다.

2023년에 직원 1만명당 1,012대의 로봇을 사용한, 세계에서 로봇 밀도가 가장 높은 국가이고 싱가포르의 직원 1만명당 로봇 770대를 사용하며 세계 2위를 차지했다. 한편 중국은 자동화기술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로봇 밀도가 직원 1만명당 470대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2019년 중국은 10위권에 진입했지만 불과 4년 만에 로봇 밀도를 두배 늘려 세계 3위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로봇 밀도는 가동중인 산업용 로봇수와 직원수 비율을 말하며 이는 여러 국가의 제조업 자동화 수준을 측정하는 효과적인 지표이다. 국제로봇트렌딩이 발표한 <2024년 세계 로봇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세계 평균 로봇 밀도는 직원 1만명당 162대로 7년전의 두배가 넘으며 중국은 독일·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로 올라섰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은

또한 올해 9월 국제로봇트렌딩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27만 6,300대로 전세계 신규 설치 대수의 51%를 차지했다. / 국제방송

◇ 안정적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외자 류입

중국 본토와 량방향 금융시장은 2014년 11월 17일 호항통이 가동되면서 처음으로 연결된 데 이어 2016년 12월 5일 심항통(深港通, 심주증시와 량방향증시 교차 거래)이 개통되면서 중국 본토와 량방향 자본시장의 상호연결이 한층 더 확대됐다.

그 배경에는 일련의 개방정책이 있었다. 시장 파악, 사업 전개를 위해 중국을 찾는 외자기관이 늘어나고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중국 경제 발전에 '신입표'를 던졌던 것이다.

"지난 10년간 상호연결의 발전은 중국 역내 시장의 국제화를 가속화시키면서 투자자의 다양성과 상품의 풍부함을 강화시켰다." 스위스 글로벌 투자은행인 UBS(瑞銀)의 글로벌 금융시장부 중국 책임자 방동명은 상호연결을 통해 중국의 역내외 시장이 충분히 융합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거래량의 경우 량방향거래소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올 1분기·3분기 '북항자금'(외국인 자금의 중국 본토 주식 투자)과 '남항자금'(호항통·심항통을 통한 중국 본토 자금의 량방향증시 투자)의 1일 평균 거래 체결액은 2014년 개통 첫날의 1일 평균보다 각각 22배, 41배 늘었다.

◇ 속도 붙는 해외 진출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중국 금융정보업체 윈드(Wind)의 통계에 따르면 17일 기준, 올해 49개 중국 기업이 미국 증시에 상장했다. 2023년 같은 기간의 31개를 훌쩍 뛰어넘은 규모이다. 량방향증시에 상장한 기업은 2023년 같은 기간의 34개보다 많은 40개로 집계됐고 이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의 역외 상장은 융자 통로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투자를 얻을 수 있고 기업의 지명도와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 공략을 확대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특히 과학기술과 혁신형 기업에 있어서 역외 상장은 더 높은 시장 전망을 가져다줌으로써 더 많은 글로벌 자본의 시선을 끌어들일 수 있다." 동원투자그룹 수석 분석가 류상동의 말이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2023년 3월부터 기업 역외 상장 등록 제도를 시행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 증시 상장에 원활한 통로와 여건을 제공해왔다. 불안정한 통계에 따르면 대략도 기업의 역외 상장 등록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이달 17일까지 약 200개 기업이 역외 최초 등록 및 자본 분할 개혁 등록 통지서를 획득했다. 기업의 역외 유자는 직접 역외 상장, 변동지분상장(VIE, 搭建协议控制) 구조 구축 등으로 다양하다. 이와 더불어 등록 기업의 분야도 다원화되면서 인공

리안 탄은 판다본드가 중화지역의 아시아 거래소에서 처음 상장된 것은 중국·싱가포르 금융 협력의 또 다른 중요한 이정표라며 다년간 이어온 양국의 우호적이며 견고한 관계를 충분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해당 도관은 27개 성·시·구, 향항특별행정구의 5억명 이상 주민에게 가스를 공급해왔다.

중양아시아 천연가스도관은 중국 최초의 다국적 천연가스도관으로 전

체 길이가 1,833킬로미터, 연간 가스 수송 능력은 600억립방메터에 달한다.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국경에서 시작되는 이 도관은 우즈베키스탄과 까자흐스탄을 거쳐 신강 휘얼귀스(霍尔果斯)의 '서기동수'(西气东输·서부지역의 가스를 소비자인 동부로 보내는 사업) 도관에 연결된다.

중양아시아 천연가스도관은 중국 최초의 다국적 천연가스도관으로 전

중국·중양아시아 천연가스도관, 공급량 5,000억립방메터 이상 기록



2021년 2월 4일, 신강 휘얼귀스에 위치한 중국 국가석유천연가스관망그룹 산하 서부도관회사의 휘얼귀스 가스압축소. (드론사진) / 신화넷

중국·중양아시아 천연가스도관이 2009년 가동 이후 중국에 5,000억립방메터 이상의 천연가스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가석유천연가스관망(管网) 그룹 산하 서부도관회사의 통계에 따르면 같은 기간 천연가스로 대체된 표준석탄은 약 6억 6,600만톤에 달했다. 이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7억 3,100만톤 감축한 것과 맞먹는 효과이다.

중양아시아 천연가스도관은 중국 최초의 다국적 천연가스도관으로 전

체 길이가 1,833킬로미터, 연간 가스 수송 능력은 600억립방메터에 달한다.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국경에서 시작되는 이 도관은 우즈베키스탄과 까자흐스탄을 거쳐 신강 휘얼귀스(霍尔果斯)의 '서기동수'(西气东输·서부지역의 가스를 소비자인 동부로 보내는 사업) 도관에 연결된다.

해당 도관은 27개 성·시·구, 향항특별행정구의 5억명 이상 주민에게 가스를 공급해왔다.

중양아시아 천연가스도관은 중국 최초의 다국적 천연가스도관으로 전